

국가유공자 등 로또 판매인 모집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청

복권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로또 판매인을 모집하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 모집인원은 1,233명이다.

로또 판매인 모집신청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본인 등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행복권 누리집(dhlottery.co.kr)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시·군·구별 무작위추첨으로 이뤄지며, 계약대상자 확정 후 제출할 국가유공자 등 관련 확인서는 신청기간 중에 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하 애국지사 작고

학생독립운동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쓴 박기하 애국지사가 지난달 20일 작고했다.

박기하 애국지사는 1928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1941년 11월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리에서 '한민족이 일제의 압박에 신음하고 있으므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 공감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황취소년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황취소년단은 14명의 소년들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조직이다.

박기하 지사는 황취소년단원들과 함께 장호원 읍내 곳곳에 한국독립과 민족단결을 촉구하는 벽보를 붙이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박기하 지사는 23일 발인을 마치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안장됐다.

박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23명(국내 20명, 해외 3명)만 남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너도나도 잘 사는 일상의 회복 위해 나아가자”

3·15의거 61주년 기념식

“열사의 정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억할 것”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3·15의거를 기억하는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각계대표, 3·15의거 참여 국가유공자, 유족,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는 주제로 열려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 총리는 “창

원시민과 경남도민의 희생정신과 민주정신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내며, 국난극복에 크나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을 위해 온몸을 바치셨던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용기를, 그리고 정의로움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한국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던 3·15의거가 합당한 평가를 받고, 나아가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열사들의 희생과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

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할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너도나도 올바르게 잘 사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고민하고, 더욱 넓게 헤아리며,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돼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식전 참배에는 3·15의거 참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참가 학교 학생대표가 나란히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된 3·15의거 정신을 미래세대인 후배 고등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간다는 다짐과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3·8민주의거의 주역들,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

3·8민주의거 기념식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을 기억하는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지난달 8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렸다.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가자,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대전에서 용솟음친 푸른 함성은 3월 15일 마산 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4·19혁명을



지난달 8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로 승화돼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대전 청년이 일으킨 정의로운 물결로 대한민국의 민주

주의가 바로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라사랑 narasarang shinmun

발행일 2021년 4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황기철
대표전화(정책·민원·상담) 1577-0606
편집·배포 044)868-0746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간 1963년 9월 19일 누리집 www.narasarang.kr

기사 중 QR코드를 통해 동영상 정보를 제공합니다.